INSS 연구보고서 2022-06

죽은 자를 통한 북한 체제 정통성 확보

: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대상으로

김종원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Tel.02-6191-1000 Fax.02-6191-1111 www.inss.re.kr

비매품/무료
94340
ISBN 979-11-89781-85-9
ISBN 979-11-89781-79-8 (세트)

INSS 연구보고서 2022-06
죽은 자를 통한 북한 체제 정통성 확보 :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대상으로 | 김종원

2022
INSS
RESEARCH
REPORT

INSS 연구보고서 2022-06

죽은 자를 통한 북한 체제 정통성 확보

: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대상으로

김종원 peter0819@inss.re.kr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
INSS
RESEARCH
REPORT

INSS 연구보고서 2022-06

죽은 자를 통한 북한 체제 정통성 확보

: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대상으로

김종원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연구보고서 2022-06

죽은 자를 통한 북한 체제 정통성 확보

: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대상으로

김종원

김종원 (金鍾沅)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관심 분야는 북한 체제변화, 엘리트, 정치경제 등 북한 정치체제이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INSS 국가행동분석-북한』(2022), "북한 자원법의 변화 연구"(2020), "북한의 기념일 지정과 변화의 정치적 통제"(2019) 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6

I. 서론 8

1. 연구 목적 및 배경 9
2. 선행연구 검토 13

II. 상징과 기억을 통한 정통성 확보 16

1. 정치적 상징조작과 정통성 확보 17
2. 집단기억을 통한 정통성 확보 18

III. 정치적 상징과 집단기억으로서 대성산혁명열사릉 26

1. 대성산혁명열사릉의 조성 및 구성 27
2. 신미리애국열사릉과의 차이 32
3.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기억공간 36

IV. 북한 체제 정통성 확보를 위한 기제 52

1. 김일성 개인기억의 집단기억화 53
2. 김정일에 의한 죽음의 위계화와 소환 57

V. 결론 68

Abstract 74

참고문헌 78

부록 82

국문초록

본 보고서는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중심으로 북한 체제에서 묘역을 통해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 주도의 죽은 자에 대한 기념과 기억은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기제로써 활용되며, 이는 근대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만들어진 국립묘지를 통해서 발휘되기 때문이다.

대성산혁명열사릉에는 혁명열사 151명이 안장되어 있는데, 이중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이 141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이란 '항일빨치산 유격대' 출신들로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항일빨치산세력을 일컫는다. 김일성이 항일빨치산 활동을 함께 했던 동지들에 대한 기억을 대성산혁명열사릉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대성산혁명열사릉을 공개하고 참배하도록 하면서 개인의 그리움과 추억을 북한 전체의 기억으로 환원시키고자 노력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양절, 광명성절, 정권창립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등의 사회주의 명절뿐만 아니라 추석과 같은 민속 명절에도 참배할 것을 강요받는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는 대성산혁명열사릉이 수많은 혁명의 계승자를 키워내는 교정이고, 이곳에 묻힌 혁명열사들이 바로 새 세대들에게 혁명가의 넋을 심어주고 혁명의 계승자들을 지속적으로 탄생시키는 스승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또한 김일성의 정통성을 그대로 자신의 정통성으로 계승하기 위해 항일빨치산 혁명선배에 대한 존경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대성산혁명열사릉의 확장사업을 주도했다. 또한, 김정일은 수령, 항일혁명투사, 조국해방전쟁참가자, 사회주의 건설 기여자 순으로 혁명선배를 위계화하고, 이들의 죽음도 차별화해서 묘역을 위계화했다. 3대 혈통세습으로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혀 있는 죽은 자를 소환해서 항일혁명전통을 끊임없이 북한 사회에 상기시키며 체제 정통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위기 심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내부동력의 고갈 등의 체제 위기 상황에서 대성산혁명열사릉은 지속적으로 반복 소환되어 체제를 버텨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심어

대성산혁명열사릉, 정통성, 항일무장투쟁, 기억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보고서는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중심으로 북한 체제에서 묘역을 통해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주요 간부들은 태양절이나 광명성절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해서 참배해 왔다. 또한, 이들은 항일혁명투사가 안장되어 있는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가 묻혀 있는 신미리애국열사릉도 직접 찾아 참배하거나 화환을 보내 추모해 왔다.[1] 북한 지도부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국가 주요 기념일과 행사 시 묘역을 방문해 추모해 왔고, 해외 인사들도 북한 방문 시 이곳에 들려 참배했다. 북한 관광 전문여행사 고려투어는 북한을 관광하는 외국인을 위한 평양 관광 일정에 금수산태양궁전과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을 포함하기도 했다.[2]

북한 지도부의 금수산태양궁전과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애국열사릉의 참배에 대해서는 북한의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왔다. 북한의 주요 언론인 조선중앙통신이나 로동신문 등에서는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의 참배나 화환 진정을 빠짐없이 보도해 왔다. 한국 언론에서도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의 참배를 주목하면서, 김정은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불참하거나 주요 기념일에 참

1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지도부는 2020년과 2021년에 직접 참배 없이 화환만을 보냈지만,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주년을 맞아 김정은이 직접 참배했다. 편집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4월 26일.

2 KORYO TOURS(https://www.koryogroup.com).

배 행사를 생략하는 경우에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내외 언론에서 북한 지도부의 묘역 방문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것이 북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금수산태양궁전,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애국열사릉 등과 같은 묘역은 단순히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죽은 자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살아 있는 자들이 이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국가 주도의 무덤은 죽은 자를 통해 살아 있는 자들에게 북한 체제의 사건이나 집단, 특정 개인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죽은 자에 대한 기념과 기억은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기에 북한 정권은 이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해 왔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죽은 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러한 묘역에 대한 참배가 북한 체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누가, 어디에 묻혀 있고, 이들에 대한 참배가 북한 체제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정통성을 확보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평양시 대성산 주작봉에 위치한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 북한 정권이 관리하는 주요 묘지는 대성산혁명열사릉 이외에도 금수산태양궁전이나 신미리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등이 있다. 물론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무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보존된 금수산태양궁전일 것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1인 지배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과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일의 시체를 보존하고 전시해 놓은 금수산태양궁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하기까지 했다.[3] 그러나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같은 특정 개인만을 숭배하고 있다. 그에 비해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북한 체제의 공식적인 최고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창출하고 수령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는 데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힌 이들을 활용해 체제 정통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 정통성의 기원이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에 있기 때문에 바로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인물들이 죽어 묻힌 대성산혁명열사릉 자체가 체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힌 항일혁명열사들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는 것을 넘어 김일성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혀 있는 인물들이 최고지도자인 수령에게 보여 준 충성심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충실성의 상징으로 북한 사회 전반에 모범적인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항일혁명투쟁,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공간으로 포장한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북한은 물론 남한 주민들에게까지 선전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공간이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북한 체제의 기원인 김일성의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항일혁명투쟁을 남한에 선전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북한에 대한 충실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북한 정권이 관리하는 또 다른 묘역인 신미리애국열사릉도 있지만, 이곳은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히지 못한 인물들이 묻히는 한 급 낮은 국립묘지이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은 특정 개인만을 숭배하는 금수산태양궁전이나 한 급 낮은 애국열사릉과 다르게 북한 체제를 건설하고 수호하는데 충성을 다했던 자들의 사후공간이자 체제 정통성을 제공해 주는 공간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성산혁명열사릉이야말로 북한 체제 정통성의 기원이자 상징이며, 수령절대주의 체제의 정당성의 기원인 공간으로 분석의 의의가 있다.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대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우리가 북한 체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프랑스혁명에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함락했던 것처럼, 현재 북한 주민들의 숭배 대상인 대성산혁명열사릉도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북한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과의 갈등이 잠재된 공간이기도 하다.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북한 독재체제를 청산하는 문제에서 어느 범위와 수준까지 북한의 과거를 인정하고 정리할 것인지 금수산태양궁전과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애국열사릉 등 북한의 묘역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와 더불어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통일 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독재체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사전에 대비한다는 데 의의도 있을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북한의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애국열사릉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고, 더구나 북한의 공식적 묘역을 방문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분석 대상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이유로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애국열사릉에 대한 연구는 재외 국민이나 언론인 등 특정인이 특별한 경우에 이러한 묘역을 방문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접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초기 연구가 보여 주는 특징은 학술적 접근보다는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애국열사릉에 방문했던 참관기를 중심으로 누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적 수준에서 진행되었다.[4]

이처럼 방문 경험을 중심으로 접근했던 연구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다. 황상익은 직접 신미리애국열사릉을 방문, 참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정해서 연구를 시도했다.[5] 이 연구는 신미리애국열사릉에 묻힌 과학기술자의 현황을 보여 주고, 이들

4 안동일, "최초공개: 평양 애국열사릉에는 누가 묻혔는가," 『역사비평사』 제14권 16호 (1991); 이주환. "대성산 혁명열사릉에는 누가 묻혀 있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웹진 제11호 (2003); 정창현, "애국렬사릉(愛國烈士陵)의 사라진 묘(苗), 생겨난 묘(墓)," 『민족 21』 2003년 4월호 (2003).

5 황상익, "북한의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묻힌 과학기술자 연구(1)," 『북한과학기술연구』 제2집 (2004), pp. 321-350.

의 생애와 과학기술분야의 업적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 국립묘지의 화해를 시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 재외국민인 최재영은 비교적 자유롭게 북한의 묘역을 참관할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애국열사릉 이외에 북한 전역 각도의 애국열사릉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6] 이 연구는 비교적 최근 북한의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의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과 이를 한국의 국립묘지와 비교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최재영의 연구는 북한의 국립묘지를 객관적,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민족정서에 기반해서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야 한다는 가치 편향적인 입장을 보인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직접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혁명전통의 지속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 권헌익과 정병호는 북한 체제 카리스마의 영속성을 유격대국가체제와 극장국가 체제가 상호 구성하면서 가능해졌다고 분석했고, 혁명열사릉을 세습적 카리스마의 완성 측면에서 접근했다.[7] 이 연구는 북한 체제에서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유격대국가의 내용 제공과 극장국가의 형태를 제공을 통해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명열사릉을 김정숙과 김정일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소개했던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애국열사릉의 현황과 이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북한 체제가 죽은 자에 대한 기억과 기념을 활용해서 어떻게, 어떤 내용의 정통성을 확보해 왔는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북한 독재체제의 과거청산 문제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가질 것이다.

6 최재영,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화해를 모색하다』 (메아리, 2022).

7 권헌익 ·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창비, 2013).

Ⅱ

상징과 기억을 통한 정통성 확보

1. 정치적 상징조작과 정통성 확보
2. 집단기억을 통한 정통성 확보

북한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대한 분석을 위해 상징조작을 통한 권력의 정당성 확보와 집단기억의 형성, 권력에 의한 기념과 기억에 대한 논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북한 정권이 창출해 낸 거대한 기념물이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심을 유도하며 체제 정통성을 확보해 왔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상징조작을 통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론과 상징을 권력이 공동체 기억으로 활용하는 이론적 논의들에 대해 먼저 접근하고자 한다.

1. 정치적 상징조작과 정통성 확보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북한 정권이 설립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국립묘지로 정권이 만들어 낸 정치적 상징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빨치산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묻혀 있는 묘지이면서 그 자체로 항일무장투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상징물이다. 이처럼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징적 장소는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찰스 메리엄(Charles Merriam)은 권력의 강제력이 유지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이러한 정치적 상징조작 개념을 소개했다.[8] 메리엄은 정치권력 유지를 위한 미란다(miranda, 찬미)와 크레덴다(credenda, 신뢰)라는 상징조작 개념을 소개했다.

미란다는 일체감, 동질성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을 의미하는데 찬양이라는 감정, 정서적 측면에 호소해서 권력을 신성화하여 신뢰와 충성을

8 찰스 메리엄 저, 신복룡 역, 『정치권력론』, (서울: 선인, 2006).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치자는 피치자들의 비합리적일 수 있는 감정을 자극해서 통치자와 피치자가 같다는 일치감을 느끼게 하여 통합,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미란다의 방식으로는 정치집단의 각종 기념일, 공공장소와 기념물, 권력을 찬미하는 음악, 통일성을 갖게 하는 깃발 · 훈장 · 조각, 일화 · 역사의 미화나 왜곡, 집단적 의례, 군중 시위 등이다.

크레덴다는 통치자가 피치자의 이성적 · 합리적 측면에 호소하여 신뢰를 획득하고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크레덴다 방식으로는 정부와 같은 통치체제에 대한 존경, 권위에 대한 복종, 희생, 합법성의 독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북한 정권에 의해 설립된 공공장소로 북한 주민에게 이곳에 묻혀 있는 인물들을 조문하고 숭배하는 감정에 호소한다는 측면에서 메리엄의 미란다의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은 이 자체로 북한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상징물이고 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징물인 것이다.

2. 집단기억을 통한 정통성 확보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이곳에 안장된 인물들은 이미 개인 수준의 기념이나 기억을 넘어서는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의 기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기억은 집단기억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집단기억은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개

인 수준의 기억보다 기억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에 주목했다.[9] 기억의 주체가 개인이지만, 개인의 기억은 개인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공동체, 집단의 테두리 안에서 집단기억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기억은 파편화되어 있지만, 사회 속에서 의미를 얻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집단기억은 기념일과 기념식, 기념물 등 사회적 틀에 의해 재구성되고 조합되어 과거가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된다고도 보았다. 결국, 알박스의 집단기억에 대한 논의는 집단기억이 개인 기억의 집합이 아니라 상징적 이미지나 연출에 의해 사회 속에서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기억의 정치 및 사회에서의 역할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다. 제프리 올릭(Jeffrey K. Olick)은 집단기억을 기념과 기억, 전통 등과 분리해서 별도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정치와 사회에서 역할에 주목했다.[10] 그는 집단기억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 담긴 의미라는 주관적 범주로 보는 개념과 사회 속에서 객관화된 대중적 상징패턴으로 보는 두 가지 개념의 문화라고 보았다. 또한 집단기억은 가브리엘 알몬드(Gabriel Almond)와 시드니 버바(Sidney Verba)의 정치문화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정치문화처럼 개인의 주관적 가치나 태도로 좁게 접근하지 않고 사회적 상황의 상징적 차원으로 더욱 넓게 접근한다. 따라서 집단기억을 통한 접근은 정치문화가 정치제도를 형성하는 수준을 넘어 정치담론을 상징적으로 구성하는 행위까지 확장한다고 보았다.[11]

9 Maurice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ed. and tr. by Lewis A. Coser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10 Jeffrey K. Olick 저, 강경이 역, 『기억의 지도』 (옥당, 2011), pp. 38-68.

11 제프리 올릭은 집단기억과 집합기억을 구별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첫째는 집단기억의 하나의 유형이기도 한 집합

국가와 지배자는 이 집단기억을 독점적 생산과 보관, 소비, 유통 등의 관리 역할을 맡아 왔다. 지배자는 피지배자들이 현재의 질서를 수용하게 하거나 피지배자를 설득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기억을 활용한다고 보았다.[12] 국가는 개인 기억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지식의 프레임을 독점해서 권력이 선호하는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려는 욕심이 있다.[13]

이처럼 공동체의 기념과 기억은 단순히 개인 수준의 기억 합산이 아닌, 사회 속에서 구성되는 개인의 집합기억의 총합을 뛰어넘는 집단기억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지배자들은 현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단기억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기념일이나 기념물은 최고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단기억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사회적, 상징적 틀에 의해 재구성된다. 북한 체제는 기념일, 기념물과 같은 국가적 공식기억을 공동체적 기억으로 규정해서 체제 존속에 걸림돌이 되는 집단기억의 발현을 억제해 왔다.

국가나 지배자들이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단기억을 관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상은 죽음이다. 죽은 자와 이를 담고 있는 공간은

기억은 개인주의 원칙에 따라 집단구성원 개인 기억을 수집하는 것이고, 둘째는 집단기억은 개인의 심리 과정으로는 환원할 수 없는 특정한 사회화 양식이 있고, 일반적으로 집단이 정체성을 가지듯 기억을 가지며 집단적 생각과 양식, 장르, 담론 등은 개별 주체의 총합을 넘어선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억과 관련한 별도의 기술적 분야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12 Harvey J. Kaye 저, 오인영 역, 『과거의 힘: 역사의식, 기억과 상상력』 (삼인, 2004).

13 James V. Wertsch, "Collective Memory and Narrative Templates," *Social Research*, vol. 75, no. 1 (2008), pp. 133–156.

공동체의 권력이 표출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14] 죽음이 인간의 가장 심층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기에 불가피하게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살아 있는 자는 죽은 자를 소환해서 의례를 통해 소통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역사관과 가치, 정치철학을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살아 있는 자는 자신의 권력과 관련 있는 사자의 존재를 '자연적 육체'의 영역에서 '정치적 육체'의 영역으로 전환하고 권력의 정통성을 공고화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15]

살아 있는 자가 자기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죽은 자를 소환하는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살아 있는 자 간에는 죽은 자와 묘지를 둘러싸고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긴장과 갈등이 조성되기도 한다. 특히 살아 있는 자가 권력을 얻어야 하거나 정통성을 확립,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죽은 자와 그 무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된다.[16]

이처럼 살아 있는 자가 죽은 자를 소환하고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의 정치적 정통성에 관여하는 무대가 바로 근대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만들어진 국립묘지이다.[17] 국민, 민족이라는 관념적 존재를 기반으로 탄생한 근대 민족국가는 첫째, 충성과 복종의 대상으로서 국가의 존재를 보여

14 Olaf B. Rader 저, 김희상 역, 『사자와 권력』 (작가정신, 2004).

15 Ernst H. Kantorowicz, *The King's two Bodies: Study in Mediaeval Political The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p. 410–411

16 Olaf B. Rader, 『사자와 권력』.

17 하상복, 『죽은 자의 정치학』 (모티브북, 2013).

주어야 하고, 둘째, 관념적 존재인 국민을 현실로 끌어내 정치적 통합체를 만들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의 존속을 위해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 필수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했다. 근대국가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정치적 관리를 위해 발명한 국립묘지는 국가가 죽은 자의 공간에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국가가 이념을 토대로 혁명을 통해서 탄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죽음에 마주하게 되었고,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않고 희생된 국민을 성스럽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내야 했다. 그렇기에 근대국가의 국립묘지에는 국가와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생명을 바치거나 기여한 사람들이 안장되었다. 이곳에 안장된 죽은 자들은 국가적 영웅으로 부활해 성스럽고 이상적인 죽음의 이념형으로 대중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살아 있는 지도자들은 이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혁명의 과정에서 죽은 자들이 안장된 국립묘지가 제공하는 권력의 정통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혁명의 가치와 이념에 관한 국민적 기억의 공간을 국립묘지에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근대국가의 국립묘지는 절대적 신성함과 애국주의적 요소가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프랑스의 빵떼옹 성당은 중세와 단절된 세속적 이념을, 미국의 알링턴국립묘지는 분리독립을 막으려는 연방주의를 표방했다. 근대국가에서 성스럽고 고귀한 행위는 국가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는 경우, 즉, 죽음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죽은 자에 대한 논의에서 더 심화된 단계로 전사자에 대한

기억을 논하기도 한다.[18] 이 논의에서는 전쟁과 전사자에 대한 기억문화를 '숭배의 기억문화'와 '애도의 기억문화'로 구분한다. 숭배문화와 애도문화 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첫째, 숭배문화가 전사자들을 향한 예찬과 영웅화, 성역화, 전사자들의 애국심과 충성심, 희생정신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애도문화는 군인의 용기, 고뇌, 개인의 죽음과 고통, 남은 자의 슬픔을 강조한다.[19] 둘째, 숭배문화가 아군 전사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애도문화는 전사자 대상을 넓혀 전체 군인과 민간인 등도 포함한다. 셋째, 숭배문화에서는 국가와 지도자가 주체이지만, 애도문화는 민간 부문이나 시민사회가 일차적 주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숭배문화의 매체가 전사자 의례와 묘, 전사자 기념시설, 전사자에 대한 표창과 서훈, 유가족 보훈·원호사업, 전사자 기념사업 등 애도문화에 비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숭배문화에서는 기억과 기념의 문법이 '나를 본받아 이를 행하라!'인데 비해 애도문화에서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는 근대국가의 전사자 숭배의 특징으로 첫째 전사자 위령·추모시스템이 상설화되는 것, 둘째, 전사자들을 안장한 국립묘지가 민족국가의 최고 성지로 등장하는 것, 셋째, 전사자 죽음의 민주화와 평등화가 추구되는 것, 넷째, 연례적인 국가적 전사자 기념일과 의례가 제정되는 것, 다섯째, 숭배의 대상이 소수의 전쟁지도자에서 다수의 무명(無名) 전사자로 바뀌는 것, 여섯째, 남성성에 대한

18 강인철, 『전쟁과 희생』 (역사비평사, 2019).

19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5).

강조 혹은 찬양, 일곱째, 사자의 의례적인 변형(사자의 통과의례로서의 전사자 의례), 여덟째, 부활과 불멸의 모티프, 종교의례(특히 장례식이나 추도식)와의 유사성 등을 제시한다.[20]

전사자 숭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심리적,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감정의 연금술'과 '희생의 논리'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다.[21] '감정의 연금술' 개념은 국가의례를 통해 전사자 유족의 슬프고 불행한 감정을 기쁘고 행복한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감정 통제의 기술로, 전쟁영웅의 창출과 연관되는 것을 의미한다. '희생의 논리'는 전쟁영웅의 창출과 유족들의 감정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으로 첫째, 전사자들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으로 찬양하는 것, 둘째, 그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했다고 감사하는 것, 셋째, 후속 세대들이 선대의 희생을 본받아 혹은 그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또 다른 자발적인 희생을 감수 내지 다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사자의 죽음은 차별화와 위계화의 재구축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았다. 전사자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 나아가 공적인 죽음과 사적인 죽음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근대 민족국가가 전쟁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전사자의 죽음이 공공화 · 국유화되어 국립묘지로 거처가 정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국립묘지 내에서도 위계가 형성되어 묘지 안장 자격의 불평등, 묘지 사이의 불평등, 묘지 내부의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20 조지 L. 모스 저, 오윤성 역, 『전사자 숭배: 국가라는 종교의 희생제물』 (문학동네, 2015).

21 다카하시 데쓰야 저, 이목 역, 『국가와 희생』 (책과함께, 2008).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북한 체제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상징조작인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북한 정권이 어떻게 공동체 기억으로 관리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Ⅲ

정치적 상징과 집단기억으로서 대성산혁명열사릉

1. 대성산혁명열사릉의 조성 및 구성
2. 신미리애국열사릉과의 차이
3.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기억공간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이곳에 안장된 인물들이다. 즉, 북한 체제에서 대성산혁명열사릉이 어떤 묘역이고 이곳에는 누가 묻혀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3장에서는 대성산혁명열사릉이 어떤 묘역인지와 북한 체제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대성산혁명열사릉의 조성 및 구성

대성산혁명열사릉은 평양시 대성 구역 대성산에 위치한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조성한 묘역이다. 즉,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운영관리한다는 점에서 금수산태양궁전과 신미리애국열사릉과 함께 국립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1973년 8월 착공, 1975년 10월 13일 준공되었고 1985년 9월에 확장 재건되었다.[22] 대성산혁명열사릉이 조성된 대성산 구역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 지역이다.

우선 대성산은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진 공간이다. 대성산은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던 평양의 동북부에 위치한 곳으로 고구려의 유적들이 산재해 있기도 하다. 대성산은 정상이 해발 270m에 불과한 높지 않은 산이지만 고구려 수도 평양 지역을 방어할 목적으로 쌓아진 대성산성이 있고, 고구려 왕궁이었던 안학궁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1,000여

22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1』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3).

기에 이르는 고구려 왕릉과 귀족무덤이 대성산에 있다.[23] 두 번째로 대성산 부근에 1960년대부터 유원지를 조성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이라는 점이다.[24] 대성산 유원지 내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성산성과 안학궁터 이외에도 1977년에 완공된 놀이공원 대성산유희장과 조선중앙동물원, 조선중앙식물원 등이 만들어지면서 역사적 의미에 더해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이라는 이점까지 갖고 있다.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입장은 "항일혁명선렬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내세우며 혁명전통의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구현하고 있는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라고 정의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항일혁명열사들에게 돌려준 크나큰 신임의 표시이고 한없는 은정의 선물이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싸운 그들의 투쟁 업적에 대한 높은 평가의 상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25] 김일성은 1985년 10월 '새로 개건확장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혁명열사릉은 명당자리"라고 언급했다.[26] 김일성은 1972년 4월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대성산을 직접 찾아다니며 대성산 주작봉 마루에 혁명열사릉 터전을 정했다.[27] 대성산의 봉우리인 장수봉과 주작봉, 소문봉 중에

23 김정일, "력사 유적과 유물 보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 (2009).

24 국가관광국 편, 『평양개관, 외국문출판사』 (평양: 국가관광국, 1995).

25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 (서울: 선인, 2003);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26 김일성, "항일혁명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 당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김일성저작집 3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27 "영생의 영광을 안겨주시려고," 2021년 4월 12일 김일성방송대학(http://www.ournation-school.com) 화면강의.

서 주작봉은 산(山)의 가운데 획에 해당하는 곳이고 대성산혁명열사릉이 이곳에 자리 잡아 평양시를 내려다 볼 수 있고, 대성산과 금수산이 잇닿아 '절승경개'를 이룬다고 보았다. 주작봉으로 옮기기 전 혁명열사릉이 남문골짜기 안쪽에 위치해 있을 때 묘자리가 좋지 못하였고, 주작봉으로 이전해서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잘 꾸렸다고 평가했다. 김정일 역시 대성산혁명열사릉의 지리적 장점을 언급했다. 1996년 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한 담화에서 대성산혁명렬사릉은 좋은 자리에 건설되었고, 금수산기념궁전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금수산기념궁전을 호위하는 듯하다고 매우 극찬하기도 했다.[28] 이처럼 대성산혁명열사릉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곳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의 구조는 능대문과 기념문주, 군상마당, 교양마당, 반신상 구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29] 대성산에 위치한 묘역이다 보니 릉대문을 지나면 가파른 계단이 이어지고, 각각의 묘역도 경사면에 단을 만들어 조성되었다.

능대문은 대성산혁명열사릉의 중요성만큼이나 웅장하게 지어져 높

28 김정일, "온 사회에 공산주의도덕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좋은 자리에 훌륭하게 건설하였습니다. 세계에는 이런 훌륭한 렬사릉이 없습니다. 우리 인민뿐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와보고는 모두 탄복합니다. 대성산혁명렬사릉만 놓고도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도덕의리를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이 자리 잡고 있는 주작봉에서 가까운 곳에 금수산기념궁전이 있습니다. 주작봉에서 바라보면 금수산기념궁전이 한눈에 안겨 오는데 마치 혁명렬사들이 두팔을 벌려 금수산기념궁전을 호위하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령님과 전우들이 영원히 같이 있게 되였습니다. 수령과 전사의 혈연적뉴대는 생전이나 사후나 같습니다."

29 북한 내나라 홈페이지(http://naenara.com.kp).

이 19m, 너비 56m 규모이다. 능대문에는 김정일이 직접 쓴 '혁명열사릉'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대성산혁명열사릉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친필로 작성된 기념물 2개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김정일 친필의 능대문 현판이다. 능대문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양옆으로 각각 4각형의 높이 8.2m, 너비 3.7m 기념문주가 있다.

기념문주 다음의 군상마당에는 항일혁명투쟁에 관한 조각군상이 배치되어 있다. 북한 체제에서 대성산혁명열사릉이 갖는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 주는 곳이 바로 이 군상마당의 조각군상들로 볼 수 있다. 조각군상은 군상마당의 좌우측에 항일혁명투쟁의 내용을 담아 방어편과 진군편으로 구분되어 세워져 있으며, 길이 18m, 높이 5.5m의 화강석 재질이다. 오른편에 있는 진군 조각군상은 항일투쟁 장면을 11인의 군상을 통해 보여 준다. 폭약을 가슴에 안고 육탄 돌격을 하는 항일유격대원 3인, 고난의 행군 장면을 보여 주는 5인, 무장을 위한 투쟁 장면을 보여 주는 3인으로 만들어져 있다. 왼쪽의 방어 조각군상은 항일혁명 사령부를 보위하는 투쟁 장면으로 역시 11인의 군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총과 수류탄을 쥐고 항일혁명 사령부의 안전을 지키는 3인, 부상당한 지휘관과 기관총수, 연길폭탄을 날라온 노인과 이를 쥐고 있는 유격대원 등 4인, 항일무장투쟁의 영향을 받아 투쟁에 참가한 노동자와 농민, 지식인 등 4인이다.

군상마당 다음의 교양마당 구역에는 김일성의 친필비가 세워져 있다. 이 친필비는 길이 18m, 높이 4.2m, 무게 470t의 화강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친필비의 내용은 "항일혁명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 당

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로, 198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40주년을 맞아 김일성이 자신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열사들을 기리며 직접 작성한 내용이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2번째 친필 기념물이 바로 이 교양마당의 친필비이다. 대성산혁명열사릉에 2개의 친필 기념물이 있는데 반해 신미리애국열사릉에는 이러한 친필 기념물이 없다는 점에서 대성산혁명열사릉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친필비의 맞은편에는 길이 18m, 높이 4.2m, 무게 350t의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헌시비가 있다. 그리고 군상마당에는 공화국영웅메달을 형상화한 화환진정대가 마련되어 있고, 이 화환진정대를 향해 청동으로 만들어진 5인의 추모군상이 세워져 있다.

대성산혁명열사릉 가장 안쪽의 반신상 구역은 약 160명의 항일혁명열사들의 묘역이다. 반신상 구역 가장 높은 곳의 중앙에는 조선노동당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 조각상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로 동으로 형상화된 반신상이 세워져 있다. 반신상은 모두 동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김정일이 1984년 6월 대성산혁명열사릉 개건·확장공사에 대한 현지지도 시 반신상을 동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30] 당시 김정일은 동의 수급상황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동으로 반신상을 제작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김일성 역시 매우 만족했다고 한다. 반신상 하단 비석에는 해당 묘지의 인물 이름과 생년월일, 혁명 참가 내용과 시기, 사망 연월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반신상 구역의 인물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30 편집국, "렬사들의 반신상에 깃든 사연," 『조선중앙통신』, 2017년 11월 28일.

2. 신미리애국열사릉과의 차이

신미리애국열사릉은 평양시 형제산 구역에 조성된 묘역이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이 수용능력의 한계를 보이자 김일성의 지시 및 김정일의 지도하에 1986년 9월 17일 형제산 구역 신미동에 애국열사릉이 조성되었다. 김일성은 신미리에 건설하고 있는 열사릉에 '희생된 남조선 혁명가들뿐 아니라 대성산혁명열사릉에 안치하지 못한 항일혁명열사들과 해방 후 당과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서 충실히 일하다가 사망한 일군들, 지난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싸운 민족주의자들'도 안치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31] 이러한 의도에 따라 조성된 신미리애국열사릉에 대해 북한은 "조국의 광복과 사회주의 건설,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렬사들의 위훈과 업적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며 빛내이기 위하여 세운 대기념비"라고 규정하고 있다.[32]

신미리애국열사릉의 구조는 능대문과 화환진정대, 묘비 구역으로 대성산혁명열사릉과 비교하면 단순하게 조성되어 있다.[33] 신미리애국열사릉 정문의 능대문은 높이 12m, 길이 30m, 너비 20m의 웅장한 규모로 세워져 있고, 재질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다. 능대문에는 '애국렬사릉'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 현판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친필은 아니다. 능대문을 지나면 화환진정대와 추모비가 나온다. 추모비에

31 김일성, "항일혁명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 당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김일성저작집 3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32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7』.

33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1』.

는 1986년 9월 17일 신미리애국열사릉이 완공된 날을 기념하여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건설,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희생된 애국렬사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라고 새겨져 있다. 이 추모비도 역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친필은 아니다. 군상마당이나 교양마당이 없는 신미리애국열사릉은 능대문, 화환진정대를 지나면 바로 묘비 구역이 조성되어 있다. 이 묘비 구역에는 2014년 기준으로 약 890여 개의 비석, 즉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묘비 구역은 중앙, 좌 · 우측 등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34] 신미리애국열사릉이 준공된 1986년 당시에는 약 190기의 묘지가, 1991년 약 230기, 2003년 약 570기, 2007년 약 660기, 2012년 약 780기, 2014년에는 약 890기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각 묘지에는 화강암으로 단과 높이 1.5m 정도의 돌비석이 세워져 있고, 돌비석에는 묘지 인물의 사진, 이름, 생전약력,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등이 새겨져 있다.

애국열사릉은 신미리애국열사릉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 10개가 더 존재한다.[35] 신미리애국열사릉이 1986년에 조성된 이후 이곳에 안장될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묘역은 포화상태가 되었고, 북한은 2008년부터 약 2년간 평양을 포함해 황해남 · 북도, 평안남 · 북도, 함경남 · 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등 10개 지역에 열사릉을 조성했다.[36]

34 최재영,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화해를 모색하다』, (메아리, 2022).

35 Ibid.

36 구체적으로 보면 황해남도 해주시에 해주열사릉,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사리원열사릉이 2009년에 준공되었고 평안남도 평성시에 평성열사릉이 2008년, 평안북도 신의주열사릉이 2011년에 완공되었다. 함경남도 함흥에 함흥열사릉을 2009년, 함경북도에는 청진시에 청진열사릉을 2010년에 준공했다. 평양시에는 락랑 구역에 평양열사릉, 강원도 원산시에 원산열사릉, 자강도의 강계시에 강계열사릉, 양강도 혜산시에 혜산열사릉이 준공되어 신미리열사릉 이외에도

대성산혁명열사릉의 구조와 비교해서 신미리애국열사릉은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보여 준다. 먼저, 대성산혁명열사릉에 조성된 묘지가 약 160기인데 비해 신미리애국열사릉에는 2014년 기준으로 약 890기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이 두 묘역에 대한 북한의 규정, 입장을 보면 알 수 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은 '항일혁명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이 이 묘역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고, 주요 안장 대상이 항일혁명열사임을 밝힌다. 반면 신미리애국열사릉은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 나라의 통일위업' 등 보다 광범위한 가치를 표방하면서 안장 대상의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항일혁명열사들이 이미 일제강점기에 사망하거나 해방 후 고령으로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성산혁명열사릉에 안장될 인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반면에 신미리애국열사릉은 항일혁명열사 이외에도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 등과 같이 더욱 넓은 범위의 애국열사를 대상으로 하면서 더 많은 인물이 묻힌 것이다.

또한, 신미리애국열사릉에는 대성산혁명열사릉에 항일혁명활동을 핵심내용으로 조성된 군상마당이나 교양마당과 같은 기념물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신미리애국열사릉이 항일혁명열사를 대상으로 한 대성산혁명열사릉보다 북한 체제에서 차지하는 국립묘지로서의 위상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최고지도자의 친필 기념물이 신미리애국열사릉에는 없다는 것도 특이

북한 전역에 10개 열사릉이 준공되어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정한 인사들이 안장되었다.

한 차이 중의 하나이다.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친필 기념물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김일성의 친필은 대성산혁명열사릉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 걸쳐 다양한 기념물에 새겨져 있고, 이 친필에 '조국과 혁명,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열렬한 사랑'이 어려 있다고까지 평가한다.[37]

대성산애국열사릉에는 동으로 만든 반신상을 세운 데 비해, 신미리애국열사릉에는 화강암 재질의 묘비석을 세운 것도 또 다른 차이이다. 김정일은 1984년 대성산혁명열사릉의 개건·확장공사를 현지지도하면서 반신상의 재질을 인조대리석으로 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으로 제작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38] 김정일은 돌이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인조대리석보다 무게나 외형적으로 더 뛰어난 동으로 반신석을 제작할 것을 지시했고, 이를 김일성도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반면에 신미리애국렬사릉의 묘비는 화강암 재질의 돌비석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의 위상 차이를 추론할 수 있다.

37 편집국, "불멸의 친필글발들에 어린 애국의지," 『로동신문』, 2019년 4월 15일. 김일성의 친필 기념물은 백두산밀영 친필송시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현판과 친필비, 서해갑문, 김형직사범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고려성균관 친필현판, 옥류교·릉라다리·충성의 다리·향산다리·미림다리·봉화갑문·성천갑문·금릉동구 등의 친필글발, 묘향산·상원암·만폭동·비로봉·동명왕릉개건기념비·고려태조왕건왕릉개건비 등의 친필글발, 판문점 친필비 등이다.

38 편집국, "렬사들의 반신상에 깃든 사연," 『조선중앙통신』, 2017년 11월 28일; "주작봉마루에 새겨주신 뜻," 김일성방송대학 홈페이지(http://www.ournation-school.com) 2016년 3월 12일 김정일 일화.

3.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기억공간

1) 누가 묻히는가?

북한에서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애국열사릉에 묻히는 인물들은 혁명열사와 애국열사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보면 혁명열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 바쳐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었거나 빛나는 생애를 마친 투사'로, 이 혁명열사가 묻히는 묘역은 '혁명렬사들을 대를 두고 추모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그들의 끝없는 충실성과 고결한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렬사들을 안치한 릉'으로 정의하고 있다.[39] 신미리애국열사에 묻히는 애국열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원쑤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투사'로, 애국열사가 묻히는 애국열사릉은 '애국렬사들을 추모하여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들의 충실성과 고결한 애국정신을 길이 전하며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꾸려놓은 릉'으로 규정하고 있다.[40] 혁명열사나 애국열사 모두 인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 투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둘 간의 사전적 의미에서부터도 차이를 보인다. 혁명열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조국과 인민해방,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위업을 실현한 인물이지만, 애국열사는 '원수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었다는 정의로부터 그 업적이 제한적이고 협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9 『조선말사전 2』, 2004,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0 Ibid.

이러한 차이에 근거해서 북한 정권은 혁명열사와 애국열사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에 차별을 두었겠지만, 이에 관한 정확한 북한 내부 규정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북한의 법규에 나와 있는 열사와 관련된 규정을 통해 이를 추론해 보도록 한다. 북한 헌법에서부터 열사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76조에서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면서 혁명열사와 애국열사, 그 가족이 특별한 처우를 받는다고 보여 주고 있다.[41] 북한 헌법에서는 헌법의 특성상 추상적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차원에서 특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북한 열사에 대한 더 구체적인 특별 처우를 보여 주는 세부 법규에서는 사법적 처우와 주택배정, 자녀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42] 먼저 재판과 관련한 특별 처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결, 판정 집행법' 제9조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집행지휘문건 또는 집행문을 발급한다.'의 당사자에서 혁명렬사, 애국렬사 유가족의 재산청구를 승인한 판결, 판정을 포함해 특혜를 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제30조의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보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 로력혁신자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주택 배정에서

41 북한 사회주의 헌법 (2019년 개정)

42 국가정보원편, 『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22).

열사 등의 특별대우를 보여 주고 있다. 자녀교육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9조 '국가는 혁명렬사, 애국렬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그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배려를 돌린다.'라고 특별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제12조에서는 '국가는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라고 보건의료에서도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제4조에서는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열사로 선정된 경우 열사증 수여는 각 지방인민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방주권기관법 제24조 12항에서 '국가표창, 렬사증, 사회주의애국희생증수여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은 열사들의 생존 시에 제도적으로 특혜를 보장하고 있고, 사후에는 대성산혁명열사릉이나 신미리애국열사릉에 안장해서 최고의 명예를 부여한다. 이는 열사가 아닌 북한 주민의 장례와 묘지를 비교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 열사가 아닌 일반 주민이 사망한 경우 가족 중심의 3일장을 치르게 된다. 북한 정권은 정권 수립 이후부터 봉건적, 유교적 문화를 비판해 왔고, 기존의 유교적 장례문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은 조선의 가정의례가 유교적인 사상과 도덕에 기초하면서 봉건통치제

도를 공고화하고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방탕한 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비판했다.[43]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조상숭배관념이 법제상에서 규정되고 제도화되어 장례와 제례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이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담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가난한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가정의례를 소홀히 하는 것은 불효한 행동으로 사회적 비난과 함께 집안에 화를 불러온다는 미신적 관념, 허례적 사고가 작용하여 가산을 기울여서라도 제를 지냈다고 비판한다. 맹목적 조상숭배관념은 봉건적 신분제도를 유지하고 봉건사회의 기초인 가족제도에 백성들을 얽어매 놓으려는 봉건통치계급의 이해관계로부터 오랜 기간 답습되었기에 고쳐야 할 대상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장례문화는 이러한 유교적 장례문화에 대한 비판에 기인해서 매우 간소화되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죽으면 직계가족은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등 지방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그 지역 인민반원들이나 직계가족의 직장 동료들이 초상집을 찾아 간소하게 3일 동안 장례를 치러 준다.[44]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별도의 장의사가 장례 절차를 주관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사망자의 가족들은 상복을 챙겨 입기보다는 남자는 검은 천을 팔에 두르고 여자는 흰 리본을 다는 경우가 보편적이고, 조문 시에도 절을 하기보다는 술을 붓고 묵념을 한다. 3일장이 끝나면 지방행정기관의 매장 허가를 받고, 대개 지방행정기관이 정해 주는 곳에 묘를 만든다. 일반 주민의 묘는 거주했던 지역의 주변 산에 만드는데,

43 장성남,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정의례』 (평양: 평양출판사, 2019), pp. 205-212.

44 민족21편, 『북녘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 선인, 2004).

최근 토지 이용을 고려해서 공동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 주민의 무덤에는 나무로 된 상석과 비석을 세우고, 돈이 있는 사람이나 고위간부들의 상석과 비석은 돌로 세우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은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해 왔지만, 묘지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당국에서 화장을 권장하고, 도 단위별로 화장터 건설을 확대해 왔다.

북한 일반 주민과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히는 인물을 비교하면, 장례절차 및 묘지에 많은 차이를 보여 준다. 대성산혁명열사릉에 안장되는 인물의 장례식은 대개 국장으로 치러진다. 2020년 1월 17일 사망한 조선혁명박물관장 황순희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진행되었고, 대성산혁명열사릉에 안장되었다.[45] 북한에서 열사와 같은 고위 인사가 사망하면, 일반 주민이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과 다르게 평양시 보통강 구역에 있는 별도의 장례식장인 서장회관에서 국장이나 사회장으로 진행한다. 국장이 진행되면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등은 공동명의로 부고를 내고, 국가장의위원회가 구성된다. 국장의 경우도 일반 주민의 장례식과 동일하게 3일장으로 치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5일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장의위원회와 가족들은 서장회관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발인 절차가 끝나면 운구차로 대성산혁명렬사릉이나 신미리애국렬사릉으로 이동해서 영결식을 진행한다. 영결식에서는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이 애도사를 낭독하고,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조총 발포, 고인의 묘지 안장, 조선노동당과 국가기관 명의의 화환 진정, 고인에 대한 추모와 묵상으로 영결식이 끝난다.

45 편집국, "황순희 동지의 장의식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20일.

2) 누가 묻혀 있는가?

본 연구에서 확인한 현재 대성산혁명열사릉에 안장된 시신은 약 151구이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장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제외하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조성한 최고의 국립묘지이기에 이곳에 묻힌 151명은 사후 북한 체제에서 최고의 숭배를 받고 기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힌 인물들은 과연 누구인가? 앞서 대성산혁명열사릉의 조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활동을 했던 조선인민혁명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묘역의 반신상 비석에 새겨진 경력을 통해 이들의 주요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록 〈표 1〉의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힌 인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1명 중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출신이 141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혁명군 지휘관 출신 5명, 조국광복회 출신 2명, 조선민족해방동맹 책임자 1명, 정치공작원 1명, 기타 1명 등이다.[46]

이처럼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힌 인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은 바로 '항일빨치산 유격대' 출신들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 중국 동북의 안도현 소사하에서 조선혁명군 일부와 공청(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반제청년동맹원들을 중심으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했고, 1934년 3월 반일인민유격대를 조

46 본 보고서 46페이지 #부록 〈표1〉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힌 인물 참조.

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했다.[47] 김일성 정권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의의를 과대포장하면서 1948년 북한 정권이 수립하면서 창건된 조선인민군이 조선인민혁명군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며, 조선인민군의 기원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된 1970년대부터는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실제로 창건된 1948년 2월 8일이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되었다는 1932년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48] 이후 북한 체제는 매년 4월 25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해 오다가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2018년에 변경되었다. 현재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은 1932년 4월 25일로, 조선인민군 창건일은 1948년 2월 8일로 각각 분리했다.[49]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건일 변경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독자적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김정은이 김일성의 정통성을 계승하고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의 별도 지정을 통해 항일무장혁명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까지 체제 정통성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출신들이 사후 북한 체제에서 최고의 죽음으로 숭배받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제외한 조선혁명군과 조국광복회, 조선민족해방동맹, 정치공작원 출신도 조선인민혁명군과 다르지 않다. 북한 체제는 조

47 1934년 반일인민유격대가 1934년 3월 동북인민혁명군으로 통합되어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로 결성되었는데, 북한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보았다.

48 『로동신문』 1978년 2월 8일; 김종원, "북한의 기념일 지정과 변화의 정치적 통제," 『북한연구학회보』 제23권 2호 (2019).

49 편집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2월 8일을 조선인민군창건일로 의의있게 기념할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8년 1월 23일.

선혁명군에 대해서 김일성이 1930년 7월 6일 중국 동북 고유수 지역에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한 첫 번째 무장혁명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50] 김일성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서 1930년 7월에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습니다. 조선혁명군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맑스-레닌주의적 무장 조직이였습니다."라는 것이다.[51] 이 조선혁명군의 일부가 후에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고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기에 사실상 동일한 항일무장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1977년 11월 30일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대회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후신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해방 후 조선인민군으로 발전하였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조선인민군의 기원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있다고 밝혔다.[52]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혀 있는 조선혁명군 지휘관 출신은 최창걸, 차광수, 김형권, 공영, 김혁, 최효일 등 6명이다.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권을 제외한 5명은 일제강점기 시절 김일성과 함께 항일운동을 했던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최창걸은 김일성이 독립군 간부양성학교인 화성의숙 재학 당시 김일성과 같이 수업을 듣고 김일성의 사상과 노선을 결사 관철하기 위해 희생한 인물로 묘사한다.[53] 이종락과 김일성이 국민부에 반대해 1930년 9월 결성한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가 '조선혁명군'으로

50 김일성,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세기와 더불어』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51 김일성, "반일인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 『김일성저작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51.

52 김일성,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집』 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414.

53 편집국, "우리의 힘은 단결, 단결의 중심은 한별," 『로동신문』, 2019년 12월 26일.

재편성될 때 최창걸이 김일성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김혁과 차광수도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하고 김일성에게 무한 충성심을 보여 준 것으로 선전하고 있는 인물이다. 심지어 김혁과 차광수를 포함한 인민 동원 구호가 1980년대에 등장하기까지 했다.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 이후 "모두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는 구호가 북한 사회에 퍼졌다.[54] 김혁은 항일빨치산 시절인 1928년 10월에 김일성을 새로운 지도자로 찬양하는 '조선의 별'이란 시를 지었고, 이를 10부작 영화로 제작하기까지 했다.[55] 최효일도 1930년 6월 김일성이 중국 만주 장춘현의 카륜에서 소집했다는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대회'(카륜회의) 이후 7월 3일 결성한 당조직 '건설동지사'에서 김일성을 처음 만나 주체형의 혁명가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소개했다.[56] 최효일은 이 자리에서 김일성에게 크게 감명을 받고 이후 7월 6일 조선혁명군 결성식에 참여하는 등 일제에 의해 사형되기까지 김일성에 대해 절대적 신뢰와 충실성을 보여 준 청년공산주의 항일혁명투사로 소개했다.

조국광복회도 1936년 5월 5일 김일성이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최초의 반일민족통일전선 조직이다. 1935년 7월 코민테른 제7차대회에서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지지와 식민지 인민해방 결의 등에 힘입어 김일성이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했다고 소개한다. 김일성은 조국광복회에 대해 "우리는 이미 193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혁명발전의

54 편집국, "억만금보다 귀중한 재부 – 충실성의 전통," 『로동신문』, 2020년 2월 7일.

55 이명재 편, 『북한 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문예상식문학예술종합출판사 편, 『문예상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56 편집국,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충신들 한생을 바쳐서라도 그 믿음에 보답하리," 『로동신문』, 2020년 1월 31일.

주객관적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로선을 내세우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으며 1936년 5월에는 드디여 우리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57] 대성산혁명열사릉에 안장된 조국광복회 출신 인물은 정동철과 박인진이다. 천도교 함경남도 도정이었던 박인진은 1936년 11월 백두산 밀영으로 김일성을 찾아가 조국광복회에 대해 소개를 받고 감명을 받아 조국광복회의 회원이 된 후 천도교인들과 농민, 청년들을 조국광복회에 가입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소개한다.[58] 더욱이 박인진은 보천보전투에서 김일성에 적극 협력해서 승리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조선민족해방동맹은 1937년 1월 갑산 지역에 조직되었던 갑산공작위원회(갑산파)를 조국광복회의 국내 하부조직으로 개편한 단체로 설명한다.[59]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혀 있는 조선민족해방동맹 책임자 박달은 박금철과 함께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직하고 비밀리에 활동을 이어 가던 중 1937년 1월 김일성을 만나고 김일성의 지시로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칭하면서 조국광복회의 확대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60]

57 김일성,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김일성저작집』 1권 (1979), p.169; 조선말사전에서는 조국광복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건하신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 '1936년 5월 5일 동강회의에서 창건되어 세상에 선포'되었고, '계급별, 계층별로 되는 대중단체들을 조직적으로 망라시켰을뿐 아니라 각 계각층 반일애국인사들을 폭넓게 받아들인 포괄적이며 전일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다'라고 설명한다. 『조선말사전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58 김일성, "제1장 지하 전선의 확대," 『세기와 더불어』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59 『정치사전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60 김일성, "제12장 광복의 새봄을 앞당겨," 『세기와 더불어』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혀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김일성이 조직했다고 하는 항일빨치산 집단인 조선혁명군과 조선인민혁명군,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 소속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김일성과 함께 항일운동을 했던 인물들이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혀 있는 것이다.

3) 누가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는가?

대성산혁명열사릉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은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북한 정권을 수립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항일혁명활동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했다. 북한 체제의 정통성은 항일무장혁명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연구자 와다 하루키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던 시기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유격대 국가'라고 평가할 정도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험은 김일성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61] 실제로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이 정권을 수립한 이후의 핵심 세력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항일빨치산 세력이었고, 소련계와 연안계, 국내 공산주의 세력, 민족주의 계열 등 다른 세력들은 권력갈등 과정에서 사라졌다.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힌 혁명열사들이 바로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항일빨치산세력, 조선인민혁명군들이었고, 이들은 김일성의 동지이자 김일성이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항일빨치산 세력들의 무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모았고, 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자신의 집무실인 금수산의사당에서 쌍안경으로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자주 바라보기까지 했던 것이다.[62]

61 와다 하루키 저, 서동만 역, 『북조선』 (서울: 돌베개, 2002).

김일성의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대한 애정은 특히나 각별했다. 김일성은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63] 대성산에 대동강 물을 끌어와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하고 인공폭포를 만들 것, 대성산혁명열사릉의 전기 공급이나 내부 참배로를 편하게 만들 것, 금수산의사당의 좋은 수목을 이식할 것 등 세밀하게 지시했다. 김일성은 많은 사람이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참배하게 하고, 이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 애국자'들과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 '남조선 애국자'들과 '청년'들이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방문하면 혁명열사들처럼 난관을 극복하면서 혁명의 승리를 위해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야 하고 세상에 태어나 아무 일도 못하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이들이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방문한다면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더욱 용감히 투쟁할 것이라고 보았다.

북한 언론에서는 체제 정통성의 근원이기도 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다녀간 사람 수가 약 5,000만 명이라고 보도했다.[64] 전국 각지의 주민들

62 편집국,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받들어 모신 빛나는 충정의 삶 2," 『로동신문』 2017년 9월 21일.

63 김일성, "항일혁명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 당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김일성저작집 3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64 편집국, "항일선렬들의 혁명정신을 굳건히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대오,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지난 40여년간 근 5,000만명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16일.

과 조선인민군 장병, 청소년 등이 대성산혁명열사릉이 세워진 1975년부터 2019년까지 약 5,000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곳을 찾은 북한 참관자들은 항일혁명열사들이 발휘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투철한 혁명신념, 투쟁정신을 간직하고 당중앙의 영도를 받들어 북한을 혁명열사들의 염원이 펼쳐지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해야 하는 교훈을 얻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해외동포와 외국인도 이곳을 찾아 항일혁명열사들을 추모했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의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 언론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주요 기념일이나 행사에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방문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언론에 소개된 북한 주민과 행사 참가자들의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을 확인해 보면,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65]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 제2차 회의 참가 대의원들,[66] 농업부문총화회의 참가자들[67]이 평양 개최 행사에 참석한 기회에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방문했다.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당기관지, 국영통신은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방문하고 지성을 바치는 인물들을 소개해 왔다. 특히,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더 자주 방문하고 지성을 바치기도 했다.

65 편집국,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9년 3월 9일.

66 편집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9년 4월 11일; 편집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선혁명박물관과 대성산혁명렬사릉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29일.

67 편집국, "2019년 농업부문총화회의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23일.

10년 이상 오랫동안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방문해서 지성을 바친 주민들이 있었다. 평양 보통강 구역 류경1동 28인민반에 거주하는 백현비 할머니 등 노인들은 수십 년간 해마다 주요 기념일에 만경대고향집 샘물을 길어 대성산혁명열사릉 방문했다.[68] 보통강 구역 류경1동 52인민반에 살고 있는 장영심 할머니도 수십 년 동안 대성산혁명렬사릉관리사업에 지성을 바쳐 왔다. 평양식료일용기술대학 교원 전기철은 지난 10여 년간 수천 뿌리의 백도라지를 혁명렬사릉주변에 심어 이를 지원하고, 관리도구들을 보내 주기도 했다. 중앙동물원 기술준비원 림은주라는 인물은 10년 동안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충성의 결의를 다졌다고도 한다.[69]

유가족이 없는 혁명열사들을 위해 찾아 추모하는 이들도 있었다. 국제통신국 종업원들은 유가족이 없는 대성산혁명열사릉 안장자들의 친혈육이 되어 생일과 사망일에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방문해 왔다. 사회과학원과 인민봉사지도국, 중앙동물원의 근로자들과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의 박사원생들은 유가족이 없는 혁명렬사들의 생일과 사망일, 주요 기념일에 묘비를 찾았다. 평양경제기술대학의 교직원, 학생들도 유가족이 없는 55명의 혁명렬사들에게 지성을 바쳤다고 한다.[70]

가족이 함께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 자녀교육에도 활용했다고 한

68 편집국, "항일혁명선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대성산혁명렬사릉 관리사업에 바치는 뜨거운 지성," 『로동신문』 2020년 5월 17일.

69 편집국,"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발현," 『조선중앙통신』, 2019년 11월 3일.

70 Ibid.

다. 부흥시멘트공장 박상남과 아내 김련희는 자식을 혁명투사처럼 키우기 위해 아들 박철명과 함께 주요 기념일마다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과 대성선혁명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 수백그루의 세잎소나무, 잣나무 등과 관리도구를 지원해 왔다.[71] 라선시 라진 구역 안주동 21인민반에 살고있는 황미순의 가정과 평양정보기술국 근로자 윤욱의 가정도 오랜 기간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참관해 왔다.[72] 평양제1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보안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혁,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외국어학원 학생인 김주혁 형제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대성산혁명열사릉의 보존관리에 힘써 왔다고 한다.[73] 동대원 구역 동신소학교 학생 김청아도 부모와 함께 주요 계기마다 김정숙 동상을 찾아 추모해 왔다. 평천 구역 새마을초급중학교 리정흥, 서성 구역 와산소학교 최일은, 최은혜 학생 등 새세대 청소년들도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 참배해 왔다.

이 외에도 농업연구원과 자원식물연구소, 만경대천석식당, 평양젖가공품전문상점, 평양산원, 동천호식당, 평양면옥, 조국해방전쟁사적관의 근로자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 지성을 바치고, 보존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지원해 왔다.

71 편집국, "가정교양과 부모의 역할," 『조선중앙통신』, 2021년 5월 25일.

72 편집국, "항일혁명선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조선중앙통신』, 2021년 10월 20일.

73 편집국, "온 사회에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이 차넘치게 하자," 『조선중앙통신』, 2020년 2월 22일.

이처럼 북한에서는 대성산혁명열사릉이 수많은 혁명의 계승자를 키워내는 교정이고, 이곳에 묻힌 혁명열사들이 바로 새 세대들에게 혁명가의 넋을 심어 주고 혁명의 계승자들을 지속적으로 탄생시키는 스승이라고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74]

74 편집국, "성스러운 교정," 『로동신문』, 2019년 12월 12일.

Ⅳ

북한 체제 정통성 확보를 위한 기제

1. 김일성 개인기억의 집단기억화
2. 김정일에 의한 죽음의 위계화와 소환

1. 김일성 개인기억의 집단기억화

대성산혁명열사릉의 조성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자신과 함께 항일빨치산 활동을 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김책(1951년 사망), 안길(1947년 사망), 강건(1950년 사망), 최춘국(1950년 사망), 김경석(1962년), 조정철(1951년 사망), 류경수(1958년 사망) 등을 그리워하며 이들의 업적을 기념하도록 동상을 세우도록 하거나 거리 지명에 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짓도록 했다.[75]. 김일성은 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항일빨치산 활동을 했던 이들을 평생 그리워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김책에 대한 일화가 유명하다.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이 김일성 집무실 금수산의사당 내부의 금고를 열었더니 김일성과 김책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고도 한다.[76] 김일성의 어린 시절부터 항일운동까지 활동을 기록한 '세기와 더불어' 곳곳에 항일빨치산 활동 당시 인물에 대한 여러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김일성이 자신의 항일빨치산 활동과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에 대한 기억을 대성산혁명열사릉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김일성은 1972년 직접 대성산을 찾아 주작봉 마루에 혁명열사릉 터를 잡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 '대성산에 혁명렬사릉을 건설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그리움과 추억을 북한의 공동체 기억으로 바꾼 것이다.[77]

---

75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76 김일성, "제23장 국제반제력량과 련합하여," 『세기와 더불어』 제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77 평양출판사 편, 『선군의 어버이 김일성 장군』 3 (평양: 평양출판사, 2009).

이후 대성산혁명열사릉 조성은 많은 부분에서 김일성 개인 기억에 의존하게 된다. 김일성은 1973년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1975년 완공까지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직접 찾아 자신의 기억을 회상해 이곳에 묻힐 인물에 대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김일성은 이곳에 묻힐 인물들을 직접 정하고, 묘비에 새길 출생일과 사망일, 활동 내역 등을 알려 주었다. 반신상 제작에 필요한 사진이 없는 인물은 김일성이 가진 자료를 보내 주기도 하고,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반신상을 수정하기까지 했다. 1985년 대성산혁명열사릉이 개건 확장된 이후에도 김일성은 집무실에서 쌍안경으로 한 명씩 보면서 추억을 회상하고 그리워했다고 한다.[78] 1987년에는 대성산혁명열사릉의 수목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자 금수산의사당과 자기 집 정원 나무들을 대성산혁명열사릉에 이전해서 심을 정도로 애정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조성한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참배하도록 했다. 김일성은 1978년 2월 8일 사로청중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평양 견학을 장려하면서 견학 대상으로 새롭게 준공한 대성산혁명열사릉을 김일성이 태어난 만경대와 유년시절을 보낸 봉화리 등과 함께 첫 번째 추천 견학지로 언급했다.[79] 결국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과 함께했던 동지들에 대한 개인 기억이 1970년대부터 북한 사회 공동체의 기억으로 변화한 것이다. 처음에는 항일빨치산 인물에 대한 개인의 그리움과 추억이었지만 북한 전체의 기억으로 탈바꿈시켰다. 북한 전체의 기억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은 대성산혁명열사릉이 완공된 이후로 계속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양절(4.15), 광명성절(2.16), 정권창립일(9.9), 조선노동당 창건일(10.10) 등의 사회주의 명절에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방문해서 항일빨치산 원로들을 참배하고 혁명전통의 학습, 수령에 대한 충성심 등을 학습해 왔다.

78 "혁명렬사릉이 전하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1)," 김일성방송대학 김일성일화, 2016년 6월 30일.

79 김일성, "청소년학생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저작집 3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심지어 추석과 같은 민속명절에도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참배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다. 북한에서 1960년대 말부터 민속명절이 봉건적 잔재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설명절과 청명, 추석 등이 민속명절로 부활하고 공식 기념일로 재지정되었다. 봉건유습 타파로 조상숭배나 민간풍속을 금지했던 중에도 추석은 북한 사회에서 명맥을 유지해 왔고, 북한 주민들은 성묘하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이런 민속명절인 추석을 북한 주민의 대성산혁명열사릉 참배와 연결했다. 추석에 조상에게 성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북한 주민에게 꽃다발을 들고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방문하도록 해서 항일빨치산 혁명선배들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며 혁명전통을 기억하고 수령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하는 명절로 변질시켜 갔다.[80] 민속 명절인 추석에 조상 무덤을 찾아 성묘하는 것이 전통명절의 의례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를 혁명전통과 결부시켜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 항일빨치산 세력을 참배하고 기억하도록 하면서 체제 정통성을 확립하는 새로운 전통을 형성해 간 것이다.

80 편집국, "유구한 민속전통이 활짝 꽃 펴난다," 『로동신문』, 2002년 9월 22일.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기억을 대성산혁명열사릉이라는 일종의 미란다, 즉, 공적 장소인 국립묘지로 상징을 조작하고, 이를 북한 사회 전체의 기억으로 체화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배체제의 확립이었다.

김일성이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 대성산혁명열사릉 건설을 제기한 것은 1972년이다. 이 시기는 김일성이 북한 내의 다양한 파벌들을 제거하고 항일빨치산 집단이 권력을 장악해가는 시기였다. 1948년 북한 정권이 수립될 당시만 해도 북한 정치 지형에는 김일성 세력인 항일빨치산파 이외에도 남로당계,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 등 다양한 사회주의 세력들이 존재했고, 연합형태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권 수립 이후 1960년대 후반까지 다양한 사회주의 세력들이 제거되고 김일성을 지지하는 항일빨치산 세력만이 남게 된다. 먼저 6·25 전쟁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김일성 권력을 위협하던 박헌영과 이승엽과 같은 남로당계가 숙청되었다. 그리고 1956년 8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우상 숭배 및 당 독재를 비판한 세력들이 숙청되면서 소련파와 연안파, 국내파 등 많은 세력이 사라졌다. 더구나 김일성과 함께 항일빨치산 활동을 했던 인물 중에서도 김일성의 개인숭배에 반대하는 등 유일지배체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가차 없이 숙청되었다. 1967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권력 장악에 앞장서며 충성을 다했던 박금철과 이효순 등 조선민족해방동맹 출신들이 반혁명적 사상 유포라는 비판을 받고 역시 숙청되었다. 그리고 김일성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에서 항일빨치산 활동을 했던 김창봉, 허봉학 등이 1969년 1월 조선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당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발각되면서 '군부강경파 사건'에 연루되어 숙청되었다.

이처럼 1967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와 1969년 군부강경파 사건을 기점으로 북한 체제에서 다양한 사회주의 세력들과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정리되면서 그나마 존재했던 다원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북한 정치 지형에는 김일성 개인숭배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항일빨치산 세력만이 남아 김일성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다른 사회주의 세력들이 제거되고 항일빨치산 세력만이 정치지형에 남아 유일지배체제가 수립되었던 시기에 대대적으로 항일빨치산을 자신의 기억에서 꺼내고, 대성산혁명열사릉과 같은 상징물로 조작해서 북한 주민의 공동체 기억으로 강요한 것이다.

2. 김정일에 의한 죽음의 위계화와 소환

김일성은 조선혁명군 및 조선인민혁명군의 경험과 기억을 북한 체제의 최고의 가치로 설정했다. 따라서 북한 체제는 반제국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정권이 수립되었고, 다원성이 사라지면서 자본주의와 같은 다른 가치들은 악으로까지 설정되었다.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일은 자연스럽게 김일성이 북한 체제의 최고 정통성으로 설정한 항일무장혁명의 전통을 이어가야 했다. 김일성을 수령으로 체제의

정점에 놓고 항일무장투쟁의 생명인 반제국주의와 사회주의를 체제 정통성으로 설정한 북한에서 김정일이 다른 가치로 정통성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실 김정일이 북한 체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거나 변화시킬만한 별다른 방안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김정일이 권력을 공고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아버지 김일성의 정통성을 그대로 자신의 정통성으로 계승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차원에서 김정일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빨치산 활동을 했던 이들에 대한 존경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에 이른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고 권력을 승계받고 1년 정도가 지난 1995년 12월 25일 로동신문에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적 의리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한다.[81]

김정일은 이 담화에서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한 항일빨치산 세력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혁명선배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혁명선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를 혁명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담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혁명선배를 존대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한다. 혁명선배를 존대한다는 근거는

81 편집국,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적 의리이다," 『로동신문』, 1995년 12월 25일. 이 담화는 북한 내부에서 불후의 노작으로 선전하기까지 했다.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로 사회주의 위업이 세대를 이어 선배들의 혁명업적을 후대들이 계승, 발전, 완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의미는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혁명가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계승발전시켜나간다는 것"으로 인간적 존경을 넘어 사상과 업적을 존경하고 계승,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혁명선배 존대가 바로 혁명적 의리이며 숭고한 도덕적 의무이고, 제국주의자와 혁명의 배신자들이 수령과 전 세대 혁명가들을 비난하면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도덕기풍"이라고 강조하고, '인민의 정신도덕적 풍모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세계를 정치사상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압도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여기서 도덕의리가 혁명가의 품격을 규정하는 지표인데, 혁명가는 도덕의리를 지닌 인간적 풍모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혁명선배의 구체적 예를 보여 주는 데 첫째가 김일성 수령이고, 둘째가 항일혁명투사, 셋째는 조국해방전쟁참가자, 마지막으로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 천리마운동선구자 들이라고 소개한다.

세 번째 부분은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도덕기풍을 세우고 도덕의리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위업의 계승 및 완성을 위해 중요한

과업'이라고 후대들의 임무를 강조한다. 조선노동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혁명선렬들이 이룩한 주체의 혁명전통'이기에 이를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고 후대를 교양하는 것이 전 세대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혁명의 1 · 2세대가 항일혁명투쟁,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 시기에 당과 수령을 어떻게 받들고 혁명의 위기를 뚫고 투쟁해 왔는가를 알려 주고, 청소년들은 혁명 1 · 2세대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헌신성, 투쟁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혁명 선배의 순위를 예시로 보여 준다. 첫 번째로 소개한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자는 수령이다. 바로 김일성이 '우리 인민이 반만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였으며 위인이 지닐 수 있는 모든 풍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위인 중의 위인'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리고 공산주의적 도덕 의리는 김일성을 끝없이 숭배하고 따르며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는 데서 가장 높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한다. 김일성의 사망에도 북한 주민은 김일성 생존 시와 다름없이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최고의 성지로 꾸미고 김일성의 시신을 생전 모습 그대로 안치 후 김일성의 업적, 사상과 영도를 계승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김일성의 영도를 높이 받드는 것과 동시에 주체혁명 위업을 위해 투쟁한 혁명가들 또한 존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항일혁명투사이다. 김정일은 "항일혁명투사들은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 위대한 수

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투쟁함으로써 일제를 때려 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는데 빛나는 공헌"을 하였다고 칭송한다. 그래서 "항일혁명투사들을 우리 혁명의 제일선배로, 혁명가의 귀감으로 내세우고 존대하며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워 항일투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을 따라 배우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혁명선배는 6 · 25전쟁 참가자로 김정일은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인민의 조국을 지켜싸운 영웅전사들"로 묘사하고 있다. 세 번째 혁명 선배는 이후의 세대들로 천리마운동과 관련한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한 세대들로 정의한다.

이처럼 김정일은 수령 김일성을 북한 체제의 최고 혁명선배로 설정하고, 항일혁명투사, 조국해방전쟁 참가자, 사회주의 건설 기여자 순으로 혁명선배의 위계를 정리했다. 그리고 혁명선배의 죽음에 대해서도 위계를 정해 묘지에도 차별화를 두어 안장했다. 김일성이 생전에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동지들과 같이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히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나, 김정일은 김일성의 집무실이었던 금수산의사당을 무덤으로 개조해 김일성을 그곳에 안장시켰다. 그래서 금수산의사당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칭이 바뀌고 최고의 성지로 둔갑했다.

그리고 다음 순위의 혁명선배들을 위해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을

건립해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주고, 위훈을 길이 전한다고 선전한다. 그래서 김정일은 이 담화에서 "혁명렬사들과 애국렬사들, 영웅전사들을 위하여 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을 훌륭히 건립"했다고 소개를 하는데, 바로 수령 다음의 혁명선배인 항일혁명투사들 대부분이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히게 되고, 다음 순위의 혁명선배들이 애국열사릉이나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인민군열사묘 등에 묻히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김정일은 1985년 9월 대성산혁명열사릉의 확장, 재건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김일성이 유일지배체계를 확립한 이후 1975년 10월 대성산혁명열사릉을 건설했다면, 김정일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인 1985년 대성산혁명열사릉의 확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도했다.

김정일은 직접 대성산혁명열사릉 확장, 재건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현지지도했다고 선전하고 있다.[82] 대성산혁명열사릉 반신상이 인조대리석으로 제작되었으나 '간고한 항일의 나날 일편단심 수령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혁명렬사들인데 그들의 반신상을 인조대리석으로 만들어놓는것은 우리의 량심이 허락치 않는다'며 동으로 변경해서 제작할 것을 지도했다. 또한, 김정일은 대성산혁명열사릉의 중앙 상단의 배경에 혁명투사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 조각상을 형상화해서 혁명열사를 추모할 것도 지시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대해서도 훌륭하다고 자평한다.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명당 자리에 훌륭하게 건설되어 세계적으로 훌륭한 열사릉이고, 이를 통해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도덕의리를 알 수 있다'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까지 했다.[83] 김정일이 이처럼 아버지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던 항일혁명 1세대 선배들을 존대하는 모범을 보이고, 이들의 혁명위업을 찬양하며 사회주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신념을 선전했다.

82 박상욱, "주작봉마루에 새겨주신 뜻," 김일성 방송대학 2016년 3월 12일 김정일 일화.

김일성 정권기에 북한 정권을 수립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최고의 정통성으로 항일무장혁명으로 설정하고,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조성해서 항일빨치산 세력을 안장했다. 그래서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혁명을 벌였던 항일빨치산 세력은 살아서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높은 가치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죽음의 위계를 만든 것이 김일성과 김정일이었지만, 김정일은 북한 체제의 죽음의 위계를 재조정했다. 아버지 김일성이 집무실인 금수산의사당에서 평소 쌍안경으로 대성산혁명열사릉의 동지들을 보며 추억을 회상하면서 죽은 후 대성산혁명열사릉에 함께 묻히길 바랐지만, 김정일은 항일무장투쟁의 정통성을 뛰어넘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무덤을 조성해서 수령 고유의 죽음의 영역을 설정했다.

3대 혈통세습으로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혀 있는 죽은 자를 소환해서 항일혁명전통을 끊임없이 북한 사회에 상기시키며 체제 정통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북한 로동신문과 같

83 김정일, "온 사회에 공산주의도덕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은 다양한 기관 매체는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혀 있는 인물의 항일무장혁명 활동과 수령에 대한 충성, 충실성을 소개하면서 항일혁명전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의 무덤은 대성산혁명열사릉의 최상단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숙은 항일의 여성영웅으로 묘사되며,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신 그녀의 다양한 일화를 김정은 정권에서 소개하기도 했다.[84] 김정숙에 대한 묘사는 북한의 여성영웅의 모습을 강조하기보다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과 같은 모습을 그려 내며 수령에 대한 결사옹위의 태도를 부각하며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선전했다. 김정숙은 항일혁명활동 중 일본군에게 쫓기는 중에도 수령 김일성의 식사를 위해 배낭에 쌀, 미숫가루, 된장을 항상 구비했고, 김일성의 젖은 신발을 말리고, 얼음물에 김일성의 옷을 빨고, 명주솜외투와 털장갑 등을 준비했다는 도덕의리를 보이고 충정의 삶을 보여 주었다고 묘사했다.

북한 로동신문에는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힌 인물들이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혁명적 신념의 소유자로 소환되어 북한 주민에게 매우 빈번하게 선전, 소개되었다. 조선혁명군 지휘관 출신인 오중흡은 1937년 김일성으로부터 600벌 군복 제작 지시를 받고, 전투 중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1분 1초의 시간도 어기지 않고 명령을 관철해 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맡겨진 임무를 무조건 수행하는 항일혁명선열이라고 소개

84 편집국,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받들어 모신 빛나는 충정의 삶," 『로동신문』, 2017년 9월 21일.

했다.[85] 1934년 13살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리권행은 김일성을 아버지이자 스승으로 모시며 김일성의 신발에 울로초를 깔아 보온에 신경을 썼고, 1939년 장백현 전투에서 적의 총탄을 김일성을 대신해서 막아 목숨으로 김일성을 보위했다고도 한다.[86] 조선인민혁명군 출신 김봉석의 일화도 소개하는데, 항상 김일성을 위해 비상미를 준비하고, 김일성을 지키기 위해 김일성이 있는 지휘부로 가는 일본군을 향해 수류탄을 던져 보위하고, 결국 김일성의 명령을 수행 중 적에게 총을 맞아 희생되었다고 혁명가의 생명을 바쳐 영광을 얻었다고 선전한다.[87]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출신인 한흥권은 1934년 '라자구전투'에서 치명상을 당하면서도 김일성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픔을 갖고 더욱 충성을 다했다고 소개했다.[88] 1935년 북만원정길에서 김일성이 다치자 달구지를 만들어 김일성을 돌보았고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포위망을 뚫으면서 수령을 보위하기 전까지 누구도 죽을 권리가 없다고 결사옹위정신을 내세웠다고까지 한다. 항일혁명투사 류경수는 적의 포탄이 쏟아지는 전투 중에서 사령관 김일성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목적지까지 도달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령관동지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갖고 있다고 칭송하기도 했다.[89]

85 편집국,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로동신문』, 2020년 1월 8일.

86 편집국,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충신들-수령옹위에 전사의 참된 삶이 있다," 『로동신문』, 2020년 4월 17일.

87 편집국,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충신들-충성의 한길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참된 전사," 『로동신문』, 2020년 12월 9일.

88 편집국,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충신들-장군님을 보위하기 전에는 누구도 죽을 권리가 없다," 『로동신문』, 2020년 3월 12일.

89 편집국, "오늘도 살아 높뛰는 전 세대들의 넋," 『로동신문』, 2021년 12월 27일.

이처럼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도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위기 심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내부동력의 고갈 등의 체제 위기 상황에서 대성산혁명열사릉은 지속적으로 반복 소환되어 체제를 버텨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의 묻혀 있는 인물들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절대불변의 신념, 목숨을 바친 혁명활동 등은 지금의 북한 체제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핵심 간부, 주민들이 주요 기념일에 방문하는 대성산혁명열사릉이 북한 체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분석했다.

북한과 같이 수령 유일 지배를 유지하고 주민들이 충성을 강요받는 체제에서 정권은 대중에게 국가가 규정하는 기억을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공동체의 기억을 강요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기념일이나 기념물을 통해서이다. 최고지도자가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기억을 현재의 사회적, 상징적 틀인 기념일이나 기념물로 재구성해 내는 것이다.

또한, 지배자들이 대중의 집단기억을 관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상은 바로 죽음인데, 죽음은 인간의 슬픈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기에 빈번하게 정치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살아 있는 지배자는 죽은 자를 의례를 통해 소환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역사관과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처럼 살아 있는 자가 죽은 자를 소환하고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의 정치적 정통성에 관여하는 공간이 바로 국립묘지이고, 북한의 대성산혁명열사릉이 이런 공간에 해당한다. 평양시 대성산에 조성된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단순히 죽은 자가 묻혀 있는 무덤의 의미를 넘어 북한 정권의 주도로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활용되는 공간이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은 김일성이 자신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인물들의 죽음을 기리고자 1975년 평양시 대성 구역 대성산에 조성한 묘역

으로 1985년 김정일 주도로 확장, 재건되었다. 대성산은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대성산성이 있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평양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우면서 평양시가 한눈에 보이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특별한 공간에 김일성은 항일혁명투쟁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조성한 것이다.

대성산혁명열사릉에는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151명의 시신이 묻혀 있다. 이곳에 묻힌 인물 중 141명이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출신으로 바로 '항일빨치산 유격대' 출신들이고, 조선인민혁명군 출신 141명 이외에도 조선혁명군, 조국광복회 출신 등 김일성과 함께 항일운동을 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김일성은 항일빨치산 활동을 함께 했던 동지들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바로 대성산혁명열사릉이라는 묘역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김일성 정권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수립된 시점부터 김일성 개인 기억을 기반으로 조성된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북한 전체의 집단기억으로 환원시키고자 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곳을 방문해 추모하게 하고, 김일성 개인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북한 체제가 숭배해야 할 전체 집단의 기억으로 전환한 것이다.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일은 김일성이 북한 체제의 최고 정통성으로 설정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이어 가야 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김정일은 1985년 대성산혁명열사릉의 확장 및 재건사업을 주도했고, 항일빨치산 활동을 했던 인물, 즉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북한 체제에 공식적으로 설파했다. 그리고 김정일은 혁명선배의 순위를 수령, 항일혁명투사, 조국해방전쟁 참가자, 사회주의 건설 기여

자 순으로 위계화를 시키고, 이들의 죽음도 묘지를 통해 금수산태양궁전,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등으로 차별화시켜 죽음의 위계화를 완성했다.

북한 주민들은 이처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기억이 북한 체제의 집단기억으로 환원, 유형화되고, 김정일에 의해 위계화가 조성된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 참배하도록 강요받는다. 북한 정권은 태양절, 광명성절, 정권창립일, 조선로동당 창건일 등 사회주의 명절뿐만 아니라 추석과 같은 민속 명절에도 북한 주민들이 참배할 것을 강요한다. 이를 통해서 북한 체제 정통성의 기원 자체인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학습하게 된다. 북한 정권은 대성산혁명열사릉이 수많은 혁명의 계승자를 키워 내는 교정이고, 이곳에 묻힌 혁명열사가 바로 새 세대들에게 혁명가의 넋을 심어 주고 혁명의 계승자들을 지속해서 탄생시키는 스승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은 정권도 권력 정통성을 확보하고 체제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혀 있는 죽은 자를 소환해서 항일혁명전통을 끊임없이 북한 사회에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위기 심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내부 동력의 고갈 등의 위기 상황에서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반복적으로 소환되어 체제를 버텨 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북한 체제 정통성의 기원 그 자체이면서 최고지도자인 수령에 대한 충성의 상징인 공간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대성

산혁명열사릉을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도 방문해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기억과 북한 체제 집단기억을 공유하기를 피력한 공간이기도 하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북한 체제가 설정한 최고 정통성인 항일혁명투쟁을 기억하는 대표적인 기념물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통일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독재체제의 청산과 북한 주민과의 통합을 위해 북한의 집단기억과 기념을 어떻게 해체하고 통일한국의 정통성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는지 사전 준비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North Korean Regime's Utilization of Mt. Daeseong Revolutionary Martyrs' Cemetery to Secure Legitimacy

Jongwon Kim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report examines how North Korea seeks to secure the regime's legitimacy by utilizing mausoleums, with a focus on the Mt. Daeseong Revolutionary Martyrs' Cemetery. State-led commemorations and recollections of the deceased have served as a mechanism to maintain and justify the supreme leaders' powers, as manifested through the national cemetery constructed after North Korea established itself as a modern state.

The Revolutionary Martyrs' Cemetery is the burial site of 151 revolutionary martyrs, of which 141 were military commanders of the Korean People's Revolutionary Army (KPRA), an anti-Japanese guerrilla unit led by Kim Il Sung. The Revolutionary Martyrs' Cemetery, thus, is an embodiment of Kim Il Sung's eulogy to his comrades.

The North Korean regime has strived to channel individual longings and memories into national recollections by opening the Revolutionary Martyrs' Cemetery to the people and having them pay their respects to the patriotic martyrs. North Koreans are obligated to visit the cemetery on public holidays such as the Day of the Sun (Kim Il Sung's birthday), the Day of the Shining Star (Kim Jong Il's birthday), the Day of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and the Day of the Foundat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also on folk holidays such as Chuseok (Korean Thanksgiving Day). Through such mandatory visits, the regime aims to promote the Revolutionary Martyrs' Cemetery as a site that fosters numerous revolutionary heirs succeeding the revolutionary spirit of the patriotic martyr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his leadership inherited from his father, Kim Jong Il led the expansion project of the Revolutionary Martyrs' Cemetery and issued an official statement paying homage to the anti-Japanese guerilla unit and revolutionary seniors. In addition, Kim Jong Il set up a hierarchy of the revolutionary seniors in the order of the leader, anti-Japanese revolutionary fighters, Fatherland Liberation War participants, and contributors to socialist construction, and arranged the burial sites accordingly. Kim Jong Un, the third Kim to rule North Korea following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also strives to secure the regime's legitimacy by summoning the revolutionary martyrs in his continuous references to the legacy of the anti-Japanese revolu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 faces a regime crisis with its dire economic situation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epleted resources. Therefore, Kim Jong Un's frequent remarks and associations with the Revolutionary Martyrs' Cemetery seem to help buttress and maintain the North Korean regime.

Keywords

Mt. Daeseong Revolutionary Martyrs' Cemetery, legitimacy, anti-Japanese guerrilla forces, memory

참고문헌

강인철. 『전쟁과 희생』. 경기: 역사비평사, 2019.

국가관광국. 『평양개관, 외국문출판사』. 평양: 국가관광국, 1995.

국가정보원편. 『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22.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 서울: 선인, 2003.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김정일. 『김정일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9.

김정일. 『김정일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김종원. “북한의 기념일 지정과 변화의 정치적 통제.” 『북한연구학회보』 제23권 2호 (2019), pp.323-353.

다카하시 데쓰야. 『국가와 희생』. 이목 옮김. 서울: 책과함께, 2008.

레더 올라프. 『사자와 권력』. 김희상 옮김. 경기: 작가정신, 2004.

문예상식문학예술종합출판사. 『문예상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민족21. 『북녘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 선인, 2004.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안동일. “최초공개: 평양 애국열사릉에는 누가 묻혔는가.” 『역사비평사』 제14권 16호 (1991), pp.99-116.

와다 하루키. 『북조선』. 소동만 옮김 서울: 돌베개, 2002.

이명재 편. 1995. 『북한 문학사전』. 경기: 국학자료원.

이주환. “대성산 혁명열사릉에는 누가 묻혀 있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웹진』 제11호 (2003).

장성남.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정의례』 평양: 평양출판사, 2019.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서울: 휴머니스트, 2005.

정창현. 2003. “애국렬사릉(愛國烈士陵)의 사라진 묘(苗), 생겨난 묘(墓).” 『민족 21』 2003년 4월호.

『정치사전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조선말사전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조지 L. 모스. 『전사자 숭배:국가라는 종교의 희생제물』. 오윤성 옮김. 경기: 문학동네, 2015.

제프리 K. 올릭. 『기억의 지도』. 강경이 옮김. 서울: 옥당, 2011.

찰스 메리엄. 『정치권력론』. 신복룡 옮김. 서울: 선인, 2006.

최재영.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화해를 모색하다』. 강원: 메아리, 2022.

카야 할베리. 『과거의 힘: 역사의식, 기억과 상상력』. 오인영 옮김. 삼인: 서울, 2004.

편집국.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적 의리이다.” 『로동신문』, 1995년 12월 25일.

편집국. “유구한 민속전통이 활짝 꽃 펴난다.” 『로동신문』, 2002년 9월 22일.

편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편집국.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받들어 모신 빛나는 충정의 삶 2.” 『로동신문』, 2017년 9월 21일.

편집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2월 8일을 조선인민군창건일로 의의있게 기념할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8년 1월 23일.

편집국. “불멸의 친필글발들에 어린 애국의지.” 『로동신문』, 2019년 4월 15일.
편집국. “성스러운 교정.” 『로동신문』, 2019년 12월 12일.
편집국. “우리의 힘은 단결, 단결의 중심은 한별,” 『로동신문』, 2019년 12월 26일.
편집국.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로동신문』, 2020년 1월 8일.
편집국.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충신들-한생을 바쳐서라도 그 믿음에 보답하리.” 『로동신문』, 2020년 1월 31일.
편집국. “억만금보다 귀중한 재부 - 충실성의 전통.” 『로동신문』, 2020년 2월 7일.
편집국.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충신들-장군님을 보위하기 전에는 누구도 죽을 권리가 없다.” 『로동신문』, 2020년 3월 12일.
편집국.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충신들-수령옹위에 전사의 참된 삶이있다.” 『로동신문』, 2020년 4월 17일.
편집국. “항일혁명선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대성산혁명렬사릉 관리사업에 바치는 뜨거운 지성.” 『로동신문』, 2020년 5월 17일.
편집국.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충신들-충성의 한길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참된 전사.” 『로동신문』, 2020년 12월 9일.
편집국. “오늘도 살아 높뛰는 전 세대들의 넋.” 『로동신문』, 2021년 12월 27일.
편집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4월 26일.
편집국. “렬사들의 반신상에 깃든 사연.” 『조선중앙통신』, 2017년 11월 28일.
편집국.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9년 3월 9일.
편집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9년 4월 11일.
편집국. “항일선렬들의 혁명정신을 굳건히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대오,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지난 40여년간 근 5,000만명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16일.
편집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선혁명박물관과 대성산혁명렬사릉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29일.
편집국.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발현.” 『조선중앙통신』, 2019년 11월 3일.
편집국. “황순희 동지의 장의식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20일.

편집국. “2019년 농업부문총화회의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23일.
편집국. “온 사회에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이 차넘치게 하자.” 『조선중앙통신』, 2020년 2월 22일.
편집국. “가정교양과 부모의 역할.” 『조선중앙통신』, 2021년 5월 25일.
편집국. “항일혁명선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조선중앙통신』, 2021년 10월 20일.
평양출판사. 『선군의 어버이 김일성 장군』 3. 평양: 평양출판사, 2009.
하상복. 『죽은 자의 정치학』. 서울: 모티브북, 2013.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1』.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3.
황상익. “북한의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묻힌 과학기술자 연구(1).” 『북한과학기술연구』 제2집 (2004), pp.321-350.
Halbwachs Maurice. *On Collective Memory*. ed. and tr. by Lewis A. Coser,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Kantorowicz, Ernst H. *The King's two Bodies: Study in Mediaeval Political Theolog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Wertsch. James V. “Collective Memory and Narrative Templates.” *Social Research*, vol. 75, no. 1. (2008), pp.133-156.
고려여행사 홈페이지(https://www.koryogroup.com).
김일성방송대학(http://www.ournation-school.com) 화면강의.
내나라 홈페이지 (http://naenara.com.kp).

부록

〈표1〉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힌 인물

	이름	경력	출생일	혁명 참가 내용	사망일
1	김정숙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7.12.24.	1931. 9. 혁명에 참가 1935. 9.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9. 9.22. 서거
2	김책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3. 8.14.	1927.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51년.1.31 서거
3	안길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7. 2.24.	1931. 혁명에 참가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7.12.13. 서거
4	류경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5. 9. 9.	1931. 혁명에 참가 1932. 8.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부인 황순희와 합장	1958.11.19. 서거
5	황순희	조선인민혁명군	1919. 5. 3.	1935.11.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남편 류경수 합장	2020. 1.17. 서거
6	김경석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0.11.13.	1931.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62. 9. 8. 서거
7	최용건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0.6.21.	1928. 혁명에 참가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부인 혁명렬사 왕옥환 합장	1976. 9.19. 서거
8	왕옥환			혁명렬사 남편 최용건 합장	
9	최현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7. 6. 8.	1924.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부인 혁명렬사 김철호 합장	1982. 4. 9. 서거
10	김철호			혁명렬사 남편 최현 합장	
11	림춘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2. 3. 8.	1929. 가을 혁명에 참가 1934.11.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88. 4.27. 서거
12	강건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8. 6.23.	1932. 혁명에 참가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50. 9. 8. 전사
13	최춘국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4. 9. 6.	1930. 봄 혁명에 참가 1932. 봄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50. 7.30. 전사
14	오중흡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0. 7.10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3. 여름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9.12.17. 전사
15	최희숙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9.12.16.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1. 3.12. 전사
16	김일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0. 3.20.	1932. 초 혁명에 참가 1935. 10.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부인 혁명렬사 허창숙 합장	1984. 3. 9. 서거
17	허창숙			혁명렬사 남편 김일과 합장	
18	오백룡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4.10.24.	1930. 혁명에 참가 1932.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84. 4. 6. 서거
19	박영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5.10.19.	1930. 초 혁명에 참가 1932.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87. 8.18. 서거
20	지병학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7. 5.24.	1931. 1. 혁명에 참가 1934. 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77. 2.28.
21	전문욱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7. 9.27.	1936. 9. 혁명에 참가 1937.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89. 4.24. 서거
22	박길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894. 7. 6.	1930. 혁명에 참가 1932.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4.10.11. 희생
23	조명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3.11.27.	1937. 6.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94. 7. 8.
24	서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7. 4.21.	1930. 5. 혁명에 참가 1932.11.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92. 9.30. 서거
25	김좌혁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8. 2. 3.	1929. 혁명에 참가 1934. 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86. 4. 5. 서거
26	오재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3. 3. 8.	1937.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88.11.30. 서거
27	정동철	조국광복회 도천리 책임자	1909. 2.28.	1936. 혁명에 참가	1986.11.17. 서거
28	주도일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9. 5. 5.	1931. 혁명에 참가 1936.10.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94. 7. 1. 서거
29	태병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6. 3. 3.	1936. 1.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97. 2. 4. 서거
30	강상호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5. 9. 1.	1934. 1.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69. 7.22 서거
31	리봉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1. 8.19.	1931. 혁명에 참가 1933.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부인 혁명렬사 김명숙 합장	1967. 3.13. 서거
32	김명숙			남편 리봉수 합장	

33	전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2.12.24.	1934년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71. 7.23. 서거
34	오죽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1. 2.14.	1936. 7.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74. 8.21. 서거
35	박두경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893. 5. 7.	193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부인 혁명렬사 김명숙 합장	1974. 9.17. 서거
36	김명숙			혁명렬사 남편 박두경 합장	
37	최순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1. 9. 9.	1931. 혁명에 참가 1934. 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남편 혁명렬사 송승필 합장	1965.11.13. 서거
38	송승필			부인 최순산 합장	
39	장철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1. 3. 2.	1930. 7. 혁명에 참가 1935.초.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남편 혁명렬사 류보영 합장	1982. 4. 9. 서거
40	류보영			부인 장철구 합장	
41	김려중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2.10.10.	1930. 혁명에 참가 1933. 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78.12.27. 서거
42	조정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6.11.28.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51. 3.18. 전사
43	한창봉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2. 8.18.	1937.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50.11.30. 전사
44	심윤경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9.10. 5.	1936. 5.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51.10.22. 서거
45	오준옥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9. 2.19.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60. 1. 9. 서거
46	김중동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4.10.16.	1936. 9.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55. 3.26. 서거
47	한익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2.10.15.	1931. 9. 혁명에 참가 1935. 1.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78. 9. 5. 서거
48	전창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5. 4.10.	1930.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부인 혁명렬사 안정숙 합장	1982. 3.12. 서거
49	안정숙			혁명렬사 남편 전창철 합장	
50	리두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6.10.24.	1932. 9. 혁명에 참가 1933. 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84. 6.26. 서거
51	박락권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8. 3. 3.	1931. 혁명에 참가 193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6. 4.18. 전사
52	김봉석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3. 1. 3.	1936. 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5. 8.14. 전사
53	심태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1. 4. 5.	1935.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9.9.29. 서거
54	리철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5. 5.14.	1937.10.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50. 7.27. 전사
55	최장만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4. 1.10.	1938.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50. 7.24. 전사
56	김만익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7. 2.19.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50. 9. 8. 전사
57	김병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1. 5. 3.	1938.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50.12 전사
58	박장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4. 4.15.	1930.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50.11. 1. 전사
59	권영벽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9. 9.21.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5. 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5. 3.10. 희생
60	리제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0. 3.23.	1936. 혁명에 참가	1945. 3.10. 희생
61	박달	조선민족해방 동맹책임자	1910.12.28.	1936. 혁명에 참가	1960. 4. 1. 서거
62	리동걸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9. 6.13.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5. 3.10. 희생
63	지태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2. 4.29.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5. 3.10. 희생
64	박길송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7. 8.18.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6.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3. 8.12. 희생
65	김혁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0.10. 3.	1936. 혁명에 참가 1937.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3. 3.13. 전사
66	지봉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5. 5. 5.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5.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3. 3.29. 전사
67	황정해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7. 5. 4.	1932. 혁명에 참가 193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1. 4.28. 전사

68	박원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6.10.15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0. 5. 1. 전사
69	리룡운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3.11.16.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0. 9. 6. 전사
70	박록금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5. 5. 3.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0.10.16. 희생
71	최원일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8.10.28.	1937.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1. 8.14. 전사
72	오일남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4. 4.29.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7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2. 5. 2. 전사
73	손태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5. 4.20.	1931. 혁명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2. 6. 5. 전사
74	김학송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7. 9.10.	1936.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2.10.20. 전사
75	리권행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1. 4.28.	193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0. 6.14. 희생
76	김운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3. 9.16.	1936.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0. 3.25. 전사
77	김택만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1. 7.27.	1934. 혁명에 참가 1936.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0. 2.23. 전사
78	최일현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6. 8.17.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9.12.17. 전사
79	김정덕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0. 8.13.	1934. 혁명에 참가 1936.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9.10. 9. 전사
80	박인진	조국광복회 천도교대표	1887. 9. 2.	1936.12. 혁명에 참가	1939. 3.16. 희생
81	량형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9.12.24.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9. 8.23. 전사
82	전동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7. 3.25.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9. 8.24. 전사
83	리동학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4. 6. 4.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12.30. 전사
84	김확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7. 7.10.	1932. 혁명에 참가 193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 4.27. 전사
85	김영국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5.11.15	1934. 반일투쟁에 참가 1937.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10.21. 전사
86	김택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4. 8.13.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3. 봄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10.21. 전사
87	전만송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3. 3.10.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11.16. 전사
88	김진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2.11.26.	1935. 봄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9. 8.23. 전사
89	최금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6. 6.10.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9.10.29. 전사
90	강홍석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2. 5.18.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9.12.17. 전사
91	김주현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4. 9. 6.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10.21. 전사
92	마동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2.10. 9.	1936. 가을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장길부 아들	1938. 1. 9.
93	박수만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7. 4.26.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 4.27. 전사
94	장길부		1884.12. 1.	마동희 어머니 '위대산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전쟁에 남편과 자녀들을 모두 바쳤을뿐 아니라 일생을 수령님께 충성다하다가 1974년 2월 18일 서거'	1974. 2.18.
95	김택룡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5.10. 3.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11. 7. 전사
96	정일권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898. 8.19.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10.15. 전사
97	최윤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3. 8.23	1924. 조선독립군 참가 1938. 봄 조선인민혁명군 편입	1938.12. 2. 전사
98	박선봉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5.11.17.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 1.18. 전사
99	최창걸	조선혁명군 지휘관	1902.11. 5.	1926.10. 혁명에 참가 1930. 7. 조선혁명군 입대	1932. 2.20. 희생
100	한흥권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2. 6.21.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 7.24. 전사
101	최경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2. 4.25.	1936. 혁명에 참가 1937. 여름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 1. 8. 전사
102	리계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4.11.15.	1931. 혁명에 참가 1936. 가을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 1.10. 전사

103	강돈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4. 7. 7.	1936. 혁명에 참가 1937.10.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 3.26. 전사
104	박수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9. 5. 1.	1931. 혁명에 참가 193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 1. 6. 전사
105	김영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5. 2.24.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7.12.10. 전사
106	최인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1. 6.26.	1930.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7. 6 5. 전사
107	전철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8. 3. 5.	1932. 혁명에 참가 1934. 겨울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7. 9. 6. 전사
108	김산호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1. 1.11.	1930.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7. 3.23. 전사
109	리달경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3. 9. 1.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7.10.25. 전사
110	김수복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5. 7. 4.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7. 7. 5. 전사
111	류란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3. 4. 7.	1931.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6. 6. 7. 전사
112	리순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7. 6.30.	1933. 혁명에 참가 1935.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6. 2.11. 전사
113	김철진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3. 8. 9.	1931. 혁명에 참가 1932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6. 2. 5. 전사
114	장룡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3. 8. 5.	1931.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5.11. 1. 전사
115	김락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7.12.17.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5. 3.29. 전사
116	김범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2. 4.14.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3. 초.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4. 4. 5. 전사
117	김철주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6. 6.12.	1926. 혁명에 참가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5. 6.14. 전사
118	리광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6. 1.23.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3. 4.29. 전사
119	오중화	왕청현 정치공작원	1899. 5.26.	1930. 혁명에 참가	1933. 7. 8. 희생
120	김중권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2.11. 2.	1930. 봄 혁명에 참가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4. 3.30. 전사
121	김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5. 7.19.	1929. 혁명에 참가 1932.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4.10.10. 전사
122	조왈남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6. 3.15.	1931. 혁명에 참가 1933.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5. 9. 3. 전사
123	량성룡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6. 3.31.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5. 9.17. 전사
124	김삼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0. 9.29.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5. 4.12. 전사
125	김형권	조선혁명군 지휘관	1905.11. 4.	1920. 반일투쟁에 참가 1930. 7. 조선혁명군 입대	1936. 1.12. 희생
126	공영	조선혁명군 지휘관	1906. 9. 9.	1924. 반일투쟁에 참가 1930. 7. 조선혁명군 입대	1930. 7.26. 전사
127	김혁	조선혁명군 지휘관	1907.10.11.	1928. 혁명에 참가 1930. 7. 조선혁명군 입대	1930. 8.25. 전사
128	최효일	조선혁명군 지휘관	1906. 8. 9.	1928. 혁명에 참가 1930. 7. 조선혁명군 입대	1932. 4. 4. 희생
129	차광수	조선혁명군 및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5. 4. 5.	1927. 혁명에 참가 1930. 7. 조선혁명군 입대	1932.10.30. 전사
130	차룡덕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899. 1. 5.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4. 8. 전사
131	윤창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0.10.14	1925. 반일투쟁에 참가 1932. 8.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4.10.28. 전사
132	박동근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4. 7.17.	1931. 봄 혁명에 참가 1932.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4.10.22. 전사
133	오진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7. 3. 8.	1932 봄 혁명에 참가 1933. 10.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95. 2.25. 서거
134	최광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8. 7.17.	1930.11. 혁명에 참가 1934.11.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97. 2.21. 서거
135	김봉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7.12. 6.	소련파 인민무력부 부부장/조선인민군 차수	1995. 7.19. 서거
136	태병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6. 3. 3.	1936. 1.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97. 2. 4. 서거
137	전문섭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9.11.24.	1936. 봄 혁명에 참가 1937. 5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98.12.29. 서거
138	지병학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7. 5.24	1931. 1. 혁명에 참가 1934. 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77. 2.28. 서거

139	조명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3.11.27.	1937. 6.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94. 7. 8. 서거
140	백학림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8.10.27.	1930. 혁명에 참가 1938. 4.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2006.10. 5. 서거
141	강위룡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3. 5.18.	1929. 혁명에 참가 1933. 5.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2001. 1. 3. 서거
142	리종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4. 2.24.	1935.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2011. 7.23. 서거
143	박성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3. 9. 2.	1934. 4. 혁명에 참가	2008.10.28. 서거
144	리을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1. 9.14.	1937.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2015.11. 7. 서거
145	김철만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0.11. 2.	1937. 8.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2018.12. 3. 서거
146	김익현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1.11. 6.	1930. 혁명에 참가 1937. 6.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2009. 1.15. 서거
147	리두익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1.11.16	1937. 6.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2002. 3.13. 서거
148	리학만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1.12.18.	1930. 혁명에 참가 1932.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8. 8. 8. 전사
149	허형식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9.10.21.	1928. 봄 혁명에 참가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2. 8. 3. 전사
150	리동광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04. 1.23.	1929. 혁명에 참가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7. 6.10. 전사
151	리홍광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10. 4.20.	1932. 혁명에 참가 1933.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35. 5. 8. 전사

※『조선향토대백과사전 17』,『김일성저작집』,『김정일선집』,『세기와 더불어』,『로동신문』,『북한정치사연구 I 』 등을 참고해서 작성

INSS 연구보고서 2022-06

죽은 자를 통한 북한 체제 정통성 확보: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대상으로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인 한석희
주소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전화 02-6191-1000 (Fax. 02-6191-1111)
홈페이지 http://www.inss.re.kr
인쇄일 2023년 2월
발행일 2023년 2월
편집 한국학술정보(주)
ISBN 979-11-89781-85-9
979-11-89781-79-8 (세트)
가격 비매품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